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68-1호)

여론속의 여輿論論

기획: AI 생성 이미지·영상 인식조사
20대 73% “구분할 수 있다” 믿었지만...
AI 이미지·영상 판별, 세대 불문 ‘혼란’

2026. 2. 25.

담당자 이은별 책임연구원

전화 | 02-3014-1038
e-mail | eb.lee@hrc.co.kr

김민지 연구원

전화 | 02-3014-0953
e-mail | kim.mj@hrc.co.kr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가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가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연구진

이소연 선임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저작권 정책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러두기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20대 73% “구분할 수 있다” 믿었지만... AI 이미지·영상 판별, 세대 불문 ‘혼란’

주요 결과

- 손가락 여섯 개, 오른팔 두 개, 어색한 사물. 2022년 초 DALL-E, 미드저니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이미지 생성이 본격적으로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당시만 해도 AI 이미지의 대표적인 오류로 자주 지적되던 장면들이다. 그러나 불과 1~2년 사이 AI 기술은 눈에 띄게 정교해졌고, 이제는 전문가조차 AI 생성물인지 실제 사진인지 한눈에 구분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올해 1월 22일부터 시행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 기본법)은 ‘AI 표시 의무’를 도입해 AI 생성물에 대한 투명성 확보에 나섰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2025년 12월 5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우리 국민이 평소 AI 이미지·영상을 얼마나 접하고 있는지와 이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또 AI 기본법이 AI 이미지·영상에 대한 신뢰 회복의 해법이 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 응답자의 70%는 최근 1년 내 AI 이미지·영상을 본 적 있으며, AI 이미지·영상의 확산이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라는 진술에도 81%가 동의한다.
- AI 이미지·영상에 대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는 응답이 53%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적이다'는 응답은 15%에 불과하며, '부정적이다'는 응답은 이보다 두 배 높은 32%를 차지한다.
- 스스로 AI와 실제 이미지·영상을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4%인데, 18-29세는 73%, 70세 이상은 44%가 구분할 수 있다고 응답하여 연령별로 뚜렷한 차이가 있다. 그러나 실제 판별 테스트에서는 세대 간 판별 능력의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으며, 연령이나 주관적 구분 능력 평가와 무관하게 8개 중 4개(50%)의 정답률에 머무른다.
- AI 기본법의 AI 사용 표시 의무 조항이 시행되면 온라인상 허위·조작 이미지의 확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진술에 77%가 동의한다. 다만, 영상 테스트 결과 AI 사용 표시 문구의 실제 인식률은 39%에 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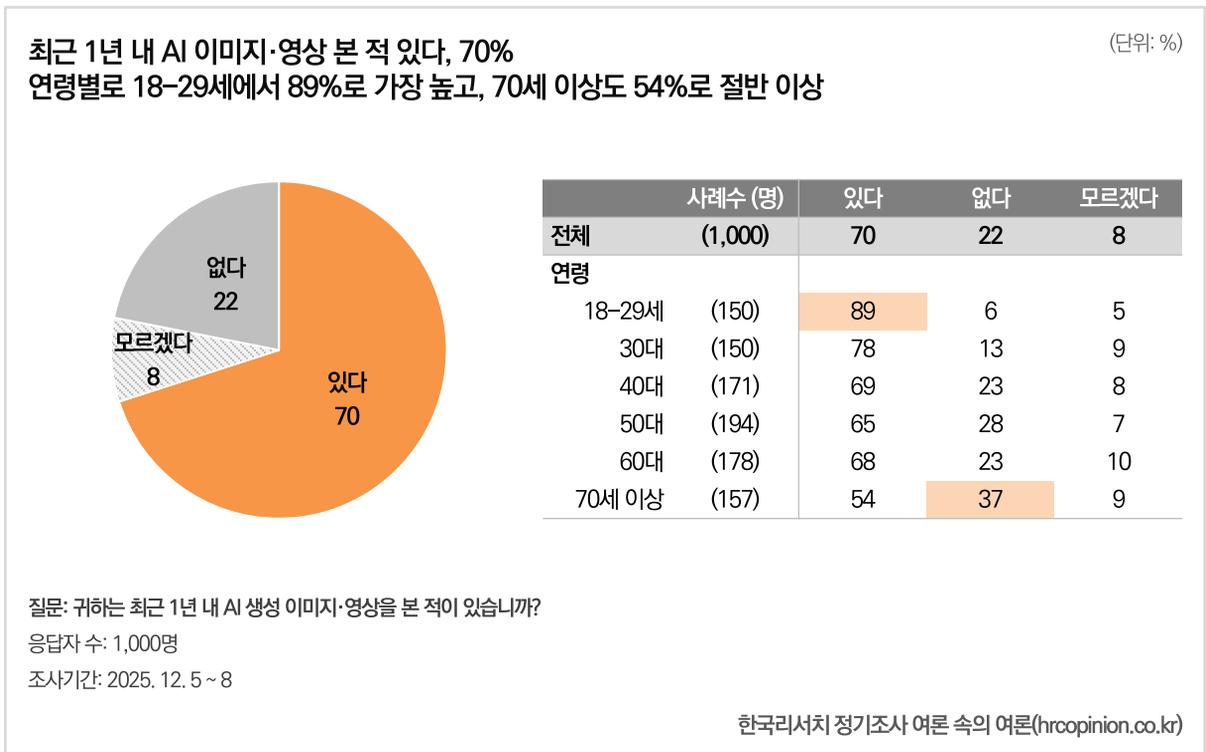


1 AI 이미지·영상 사용 실태

최근 1년 내 AI 이미지·영상 '본 적 있다' 70%
AI 이미지·영상의 확산은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이다 81%

본 조사에서 AI 이미지·영상은 '사람이 직접 촬영하거나 그린 것이 아닌, 인공지능(AI)이 학습한 자료를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낸 이미지·영상'으로 정의하였다.

조사 시점 기준 최근 1년 내에 AI 이미지·영상을 본 적 있는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70%이다. 연령별로 보면 18-29세가 89%로 가장 높으며, 70세 이상도 54%가 '본 적 있다'고 응답해 AI 이미지·영상을 접한 경험이 모든 연령대에 걸쳐 고루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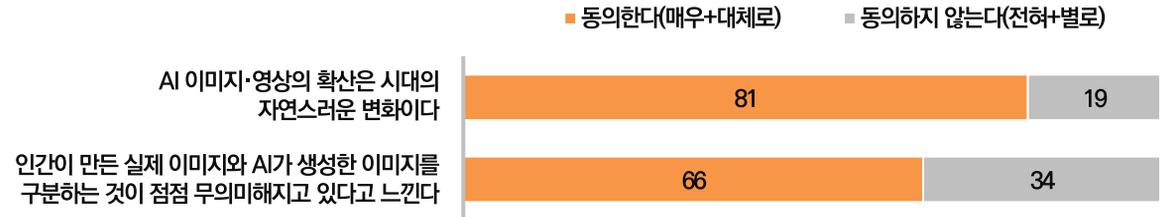


이러한 높은 경험 비율은 AI 기술을 대하는 대중의 수용적인 태도로 이어지고 있다. 응답자의 81%가 AI 이미지·영상의 확산을 '시대적 흐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답했으며, 66%는 '인간의 창작물과 AI 생성물을 구분하는 것 자체가 점차 무의미해지고 있다'는 데 동의했다. 즉, 대중은 이제 AI 생성물을 낯선 기술이 아닌 일상 속에 스며든 필연적인 삶의 변화로 받아들이고 있는 셈이다.

AI 이미지·영상의 확산은 시대의 자연스러운 변화 81%

인간이 만든 실제 이미지와 AI가 생성한 이미지를 구분하는 것이 점점 무의미해지고 있다고 느낀다 66%

(단위: %)



질문: 귀하는 AI 생성 이미지·영상과 관련된 다음 각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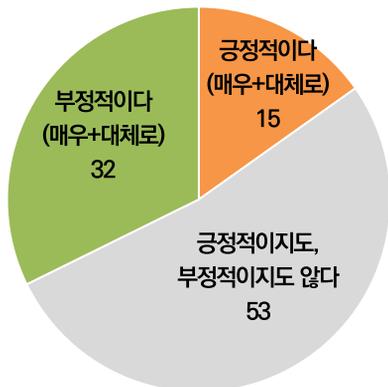
AI 이미지·영상에 대한 인식

AI 이미지·영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15%에 불과, ‘부정적 인식’은 2배 높은 32%
실제 이미지·영상보다 AI 이미지·영상이 사용된 상황에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낮아

다만 AI의 확산이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라는 인식과 달리, AI 생성물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은 여전히 존재한다. AI 이미지·영상에 대해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가 53%로 가장 높은 가운데,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15%에 불과하며,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은 이보다 두 배 높은 32%이다. 특히 낮은 연령대일수록 AI 생성물을 많이 접함에도 불구하고, 인식 측면에서는 18-29세의 47%가 부정적이라고 답해 젊은층의 AI 생성물에 대한 경계심이 상대적으로 강하다.

AI 이미지·영상에 대한 긍정적 인식은 15%에 불과, 부정적 인식은 2배 높은 32%
18-29세 젊은층에서 상대적으로 부정 인식 높아

(단위: %)



	사례수 (명)	긍정적이다 (매우+대체로)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다	부정적이다 (매우+대체로)
전체	(1,000)	15	53	32
연령				
18-29세	(150)	14	39	47
30대	(150)	18	52	30
40대	(171)	14	58	28
50대	(194)	13	56	31
60대	(178)	12	58	30
70세 이상	(157)	22	49	29

질문: 귀하는 평소 AI 생성 이미지·영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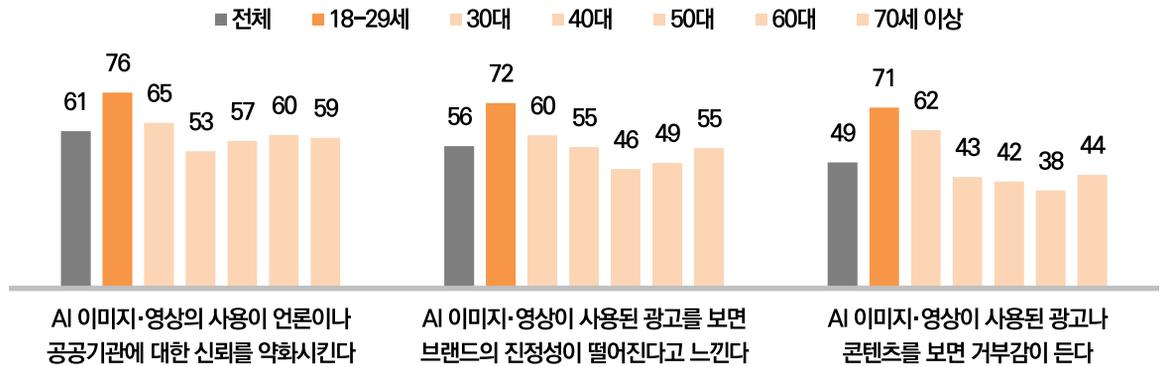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5~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I 이미지·영상에 대한 응답자들의 다양한 인식도 확인해 보았다. ‘AI 이미지·영상의 사용이 언론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킨다’ 61%, ‘AI 이미지·영상이 사용된 광고를 보면 브랜드의 진정성이 떨어진다고 느낀다’ 56%, ‘AI 이미지·영상이 사용된 광고나 콘텐츠를 보면 거부감이 든다’ 49%로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인식이 확인된 가운데, 18-29세는 각각 76%, 72%, 71%가 동의해 청년층을 중심으로 AI 생성물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형성되어 있다. 이는 젊은 세대에서 AI 생성물을 접하는 빈도가 높은 만큼, 기술의 부정적 활용 사례에 대한 노출도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비판적 경계심이 강화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18-29세 젊은 층, AI 이미지·영상의 사용이 광고·콘텐츠, 언론·공공기관, 브랜드에 대한 부정 인식을 높인다는 응답 타 연령대 대비 높아 (단위: %)



질문: 귀하는 AI 생성 이미지·영상과 관련된 다음 각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비교: 동의한다(매우 동의한다+대체로 동의한다)만 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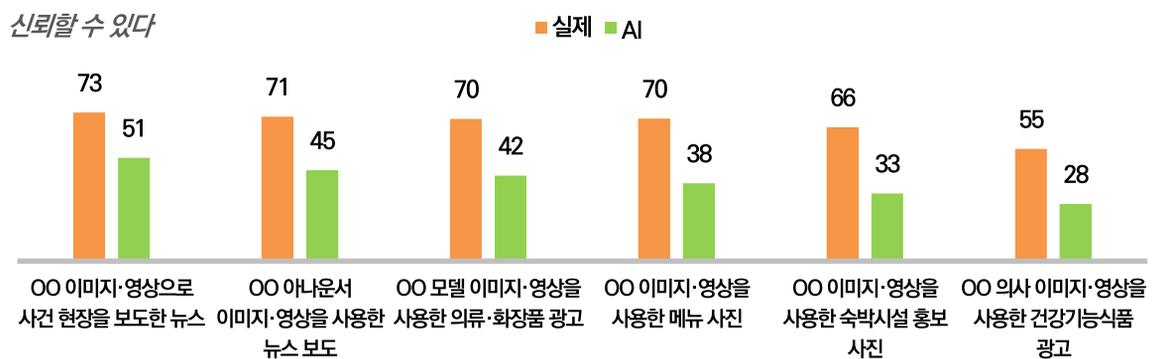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또한 실제 이미지·영상과 AI 이미지·영상 간의 신뢰도 차이도 뚜렷하다. 뉴스 보도, 광고, 메뉴 사진 등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 이미지·영상보다 AI 이미지·영상이 사용되었을 때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2~30%가량 낮다. 이는 대중이 분야를 막론하고 AI보다 실제 이미지·영상을 신뢰하며, AI 이미지·영상의 사용이 정보의 신뢰도를 낮추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이미지·영상이 사용된 상황보다 AI 이미지·영상이 사용된 상황에서 정보를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이 전반적으로 낮아 (단위: %)



질문: 실제 - 귀하는 실제 이미지·영상이 사용된 다음 각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AI - 귀하는 AI 이미지·영상이 사용된 다음 각 상황에서 해당 정보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신뢰할 수 있다(매우 신뢰할 수 있다+대체로 신뢰할 수 있다) 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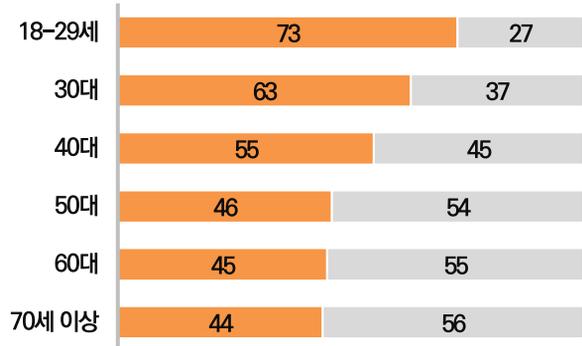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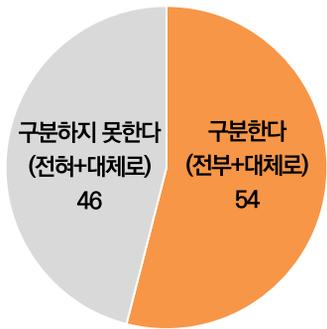
AI 이미지·영상 구분에 대한 의견

스스로 AI 이미지·영상과 실제 이미지·영상 '구분한다' 54% 그러나 AI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구분 정답률은 높지 않아

스스로 AI와 실제 이미지·영상을 얼마나 잘 구분할 수 있는지 묻은 결과, 응답자 중 절반(54%)이 '구분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연령별로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데, 18~29세의 경우 73%가 구분 가능하다고 답해 높은 자신감을 보인 반면, 70세 이상은 44%에 그쳐 연령대가 높을수록 AI 이미지·영상 판별에 대한 주관적 어려움이 커지는 경향이 보인다.

스스로 AI 이미지·영상과 실제 이미지·영상을 잘 구분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54%
AI 이미지·영상 주관적 구분인식,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

(단위: %)



질문: 귀하는 귀하 자신이 AI 이미지·영상과 실제 이미지·영상을 얼마나 잘 구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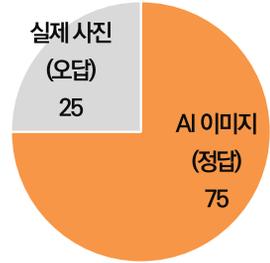
그러나 실제 판별 테스트 결과, AI 이미지에 대한 대중의 구분 능력은 연령이나 주관적 구분 능력 평가와 무관하게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론 속의 여론>팀이 AI를 통해 제작한 사람·사물 이미지 4장과 실제 사람·사물 사진 4장을 무작위로 제시해 실제 사진인지 AI 이미지인지 구분해 달라고 한 결과, 평균 정답 개수는 4개로 절반에 그쳤다. 세부적으로는 0~3개 정답(36%), 4개 정답(35%), 5~8개 정답(30%)으로 나타나 정답률이 높지 않았다. 특히 눈여겨볼 점은 세대별 판별 능력의 차이가 미미했다는 사실이다. 스스로 판별 능력에 높은 자신감을 보였던 18~29세와 자신감이 낮았던 70세 이상 모두 실제 테스트에서는 비슷한 수준의 정답률을 기록했다.

나아가 응답자의 14%는 실제 사진 4장을 모두 AI 이미지라고, 8%는 AI 이미지 4장을 모두 실제 사진이라고 오인하기도 했다. 정교해진 AI 기술로 인해 오히려 실제 사진을 AI 이미지라고 착각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어, AI 이미지·영상 생성 기술이 더욱 발전할 미래에는 인간의 인지 능력만으로 이미지의 진위를 가려내는 데 더 큰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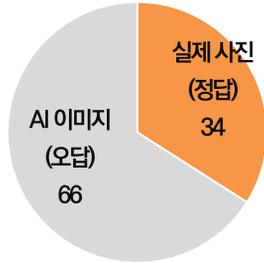
응답자들에게 제시한 8장의 AI 생성 이미지·실제 사진과 각각의 인지 비율(%)



Sora로 생성한 인물 이미지(2025. 12. 4)



Sora로 생성한 인물 이미지(2025. 12. 4)



실제 인물 사진(출처: unsplash)



실제 인물 사진(출처: unsp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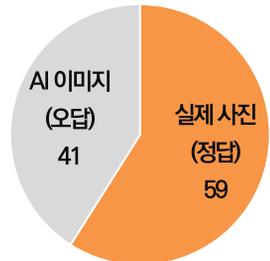
Sora로 생성한 사물 이미지(2025. 12. 4)



Sora로 생성한 사물 이미지(2025. 12. 4)



실제 사물 사진(출처: unsplash)



실제 사물 사진(출처: unsplas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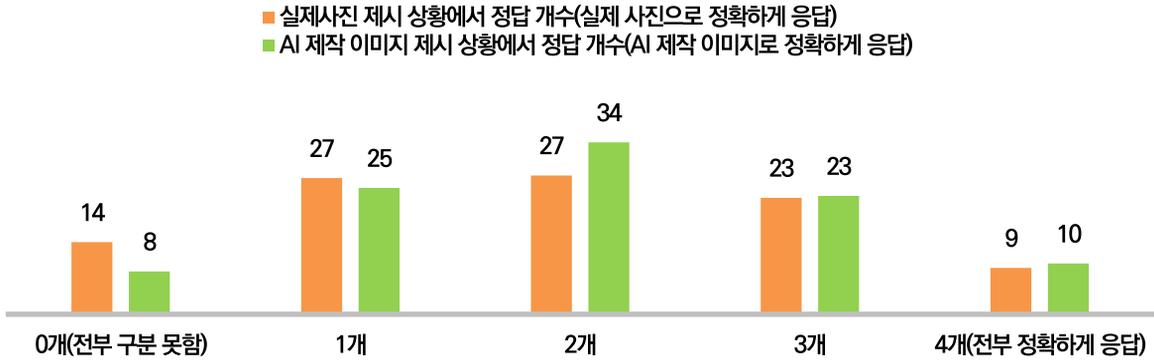
질문: 귀하는 다음 이미지가 AI 생성 이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5 ~ 8

AI 생성 이미지와 실제 이미지 구분 정답 개수, 0~3개(36%), 4개(35%), 5~8개(30%)
연령별 판별 능력 차이도 크지 않아

(단위: %)



		사례수 (명)	0~3개	4개	5개~8개	평균 정답 개수(개)
전체		(1,000)	36	35	30	4
연령						
	18~29세	(150)	37	27	36	4
	30대	(150)	36	33	31	4
	40대	(171)	41	34	25	4
	50대	(194)	40	36	24	4
	60대	(178)	32	37	31	4
	70세 이상	(157)	27	39	34	4

질문: 귀하는 다음 이미지가 AI 생성 이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제 이미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그래프) 실제, AI 이미지 각 4문항에 대해 정답을 맞춘 개수 제시 // (표) 8문항에 대해 정답을 맞춘 개수 제시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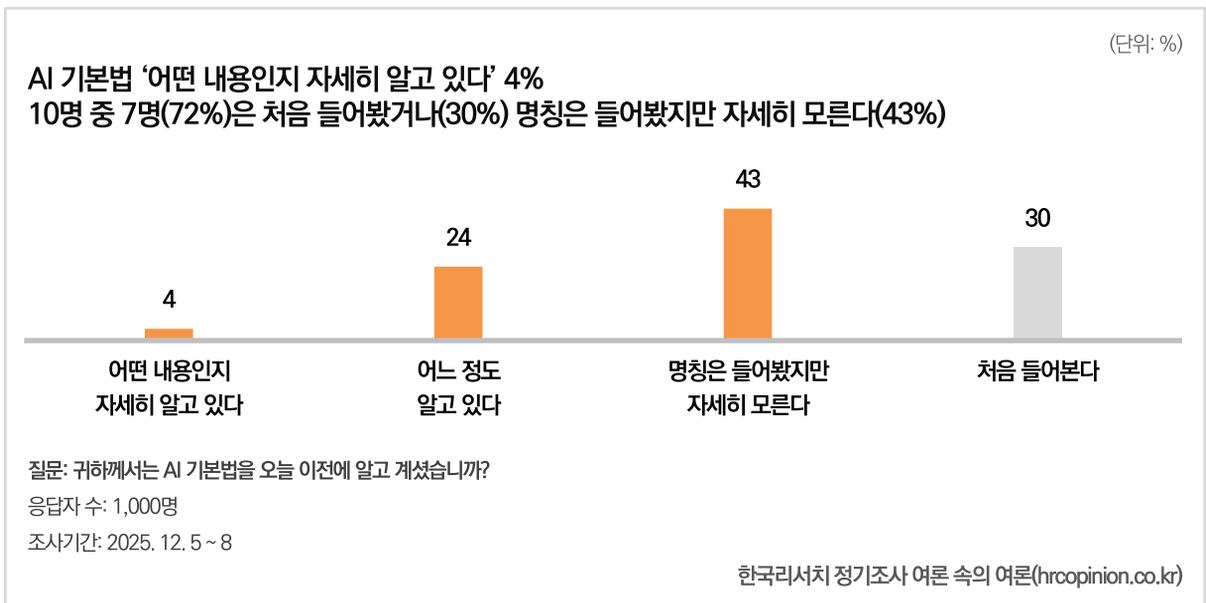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4 AI 기본법

AI 기본법,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있다 4%에 그쳐 10명 중 7명 이상(72%)은 처음 들어봤거나(30%) 명칭은 들어봤지만 자세히 모른다(43%)

이처럼 AI가 발전함에 따라 AI 기본법이 2024년 1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 올해 1월 22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앞으로 생성형 AI 결과물에는 AI 사용 여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AI 기본법의 인지도를 물어본 결과,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알고 있다'는 4%, 10명 중 7명 이상(72%)은 처음 들어봤거나(30%) 법안 명칭은 들어봤지만 자세히 모른다(43%)고 답했다. 다만 이는 AI 기본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인지도로, 향후 제도 안착에 따라 AI 기본법에 대한 인지 양상은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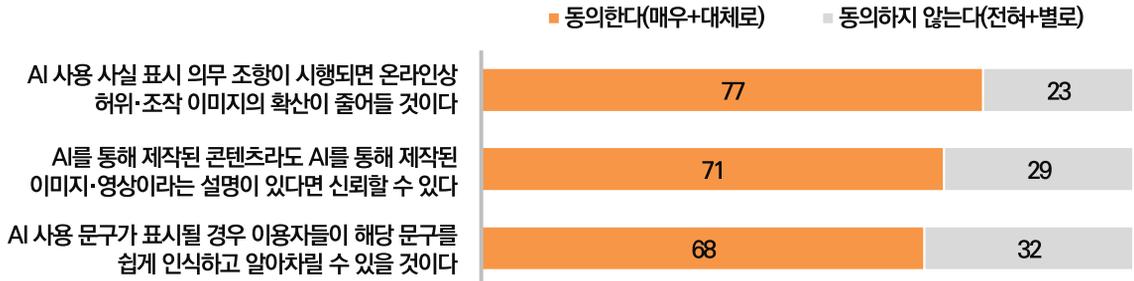


AI 사용 표시 문구 조항의 긍정적 역할에 대해 다수가 동의 다만 영상 테스트 결과 AI 사용 표시 문구의 실제 인지율은 39%에 그쳐

AI 기본법의 AI 사용 표시 조항에 관한 응답자들의 다양한 인식도 살펴보았다. 그 결과, 'AI 사용 표시 의무가 시행될 경우 온라인상 허위·조작 이미지의 확산이 줄어들 것'이라는 데 77%가 동의하며, 'AI로 제작된 콘텐츠라도 AI 이미지·영상이라는 설명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는 응답도 71%에 달했다. 또한 'AI 사용 문구가 표시될 경우 이용자들이 이를 쉽게 인식하고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응답도 68%로, 전반적으로 AI 사용 표시 문구가 갖는 책임 있는 정보 제공 및 투명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AI 사용 사실 표시 의무 조항이 시행되면 온라인상 허위·조작 이미지의 확산이 줄어든 것이다 77%
AI를 통해 제작된 콘텐츠라도 AI를 통해 제작된 이미지·영상이라는 설명이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 71%

(단위: %)



질문: 귀하는 AI 생성 이미지·영상과 관련된 다음 각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귀하는 AI 사용 사실 표시 의무 조항과 관련된 다음 각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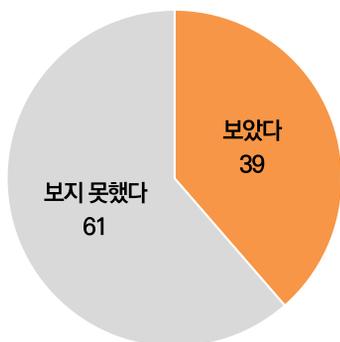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12.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다만 AI 사용 표시가 실제 현장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문구가 있으면 쉽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것’이라던 대중의 기대와 실제 인지율 사이에 큰 간극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응답자들에게 <여론 속의 여론>팀이 제작한 AI 생성 동영상 시청하게 하고, 해당 영상에 삽입한 ‘이 영상은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라는 문구를 보았는지 묻은 결과, 보았다는 응답은 39%에 불과했다. 특히 연령대가 높을수록 문구를 발견했다는 비율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방금 본 영상에서 ‘이 영상은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라는 문구 보았다, 39%
AI 사용 문구 인지 여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낮아

(단위: %)



	사례수 (명)	보았다	보지 못했다
전체	(1,000)	39	61
연령			
18-29세	(150)	82	18
30대	(150)	70	30
40대	(171)	37	63
50대	(194)	23	77
60대	(178)	14	86
70세 이상	(157)	16	84

질문: 귀하는 방금 보신 영상에서 ‘이 영상은 생성형 AI를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라는 문구를 보셨습니까?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12. 5 ~ 8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I 사용 표시 문구의 실제 인지율이 기대에 크게 못 미쳤다는 점은, AI 기본법이 '표시 의무의 도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드러낸다.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개인의 판단에 의존해 진위를 가려내는 방식은 한계에 부딪히고, 그 빈틈은 허위·조작 정보의 확산과 공적 영역 전반의 신뢰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제 법과 정책은 AI 사용 사실을 '표시했다'는 형식적 준수를 넘어, 국민이 실제로 인지하고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라는 질문과 마주하고 있다. AI 기본법이 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신뢰의 장치로 기능할지, 아니면 현장과 괴리된 규제 중심의 제도로 남을지는 이러한 후속 설계에 달려 있다.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11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9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39,031명, 조사참여 1,631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2.6%, 참여대비 61.3%)
조사일시	• 2025년 12월 5일 ~ 12월 8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여론속의

여輿論論

Hankook Research

